

‘쇼핑·여가·주거’ 3박자 갖춘 주거복합단지 뜬다

부산 오션시티 푸르지오
인천 미추홀 꿈에그린 등

청약 경쟁률 100대 1까지 넘어
이달 공급 복합단지도 시선집중

‘쇼핑·여가·주거’ 3박자를 갖춘 주거복합단지가 분양시장에서 주목받고 있다.

11월 주택 업계에 따르면 올 하반기 분양한 주요 주거복합단지들의 청약 경쟁률이 100대 1을 넘어선 것으로 집계됐다.

지난 7월 경기도 부천시 중동에서 공급한 ‘힐스테이트 중동’은 오피스텔 49실 모집에 6188명의 청약자가 몰리며 평균 126.29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다. 아파트

〈주거복합단지 분양(예정)리스트〉

위치	단지명	총가구수 (일반분양)	건설사
인천광역시 미추홀뉴타운 내 도시개발 1구역	인천 미추홀 꿈에그린	864	한화건설
부산광역시 영도구 동삼동 1180번지 일원	부산 오션시티 푸르지오	846	대우건설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	금남로 대광로제비앙	519(151)	대광건설

*분양 개요는 건설사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아파트 기준). /자료=각사

도 615가구 모집에 1만1596개의 통장 접수돼 18.86대 1로 1순위 마감했으며, 상업 시설도 단기간에 완판됐다.

8월 경기 동탄2신도시 ‘동탄역 유턴노르웨이숲’ 복합단지는 206가구 모집에 3만8029명이 몰리며 1순위 청약경쟁률 184.61대 1로 올해 수도권 아파트 최고 경

쟁률을 기록했다.

업계 관계자는 “주거복합단지는 교통, 편의시설, 자연환경 등 우수한 인프라를 갖춰 신규 분양 시장에서 인기가 높다”고 설명했다.

11월에 공급하는 주거복합단지도 청약 인기몰이를 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

이달 인천에서 미추홀뉴타운 개발 첫 시작을 알리는 주거복합단지가 공급된다. 한화건설이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주안동 228-9번지(전 주안초교 부지) 일대에 조성하는 ‘인천 미추홀 꿈에그린’이다. 이 단지는 지하 8층~지상 44층, 4개동, 전용면적 59~147㎡ 864가구로 구성된다.

인천에서는 지난해 주거복합단지의 청약 성적이 인기를 입증한 바 있다. 지난해 11월 송도국제도시에서 분양한 ‘송도 SK뷰 센트럴’은 2017년 인천 최고 경쟁률인 123.76대 1, 오피스텔 역시 51.3대 1로 높은 경쟁률을 기록했다.

부산에서는 대우건설이 부산 영도구 동삼동 1180번지 일대에 들어서는 ‘부산

오션시티 푸르지오’를 분양 중이다. 단지는 동삼동 복합지구개발사업의 일환으로 조성되며 지하3층~지상 49층, 아파트 4개동 846가구, 오피스텔형 레지던스 1개동 160실 규모로 지어진다.

국토부 도시재생 뉴딜사업에 광주역 일대가 선정되며 광주역 복합개발사업을 앞두고 있는 가운데, 인근에 조성되는 주거복합단지 분양에도 관심이 쏠린다.

〈대광건설은 광주의 중심인 동구 금남로에 ‘금남로 대광로제비앙’을 공급 중이다. 단지는 지하3층~지상 38층 4개동, 아파트 519가구 중 전용면적 84㎡ 151가구를 일반분양한다. 오피스텔 42실과 상업시설 센트럴스퀘어도 함께 조성된다.

/채신화 기자 csh9101@metroseoul.co.kr

韓 조세재정정책 소득재분배 효과 ‘꼴찌’

현대경제연구원 보고서

빈곤 탈출률 OECD 28개국 중 최저

한국 조세 재정정책의 소득재분배 효과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꼴찌 수준으로 나타났다.

정책의 재분배 효과를 높이려면 여러 복지 문제를 둘러싼 사회적 합의를 형성하는 것이 우선이라는 제언이 나온다.

현대경제연구원 정민 연구위원과 민지원 연구원은 11일 ‘조세재정정책의 소득재분배 효과 국제 비교와 시사점’이라는 보고서에서 “한국의 조세 재정정책에 따른 빈곤 탈출률은 OECD 28개국 중 가장 낮다”고 밝혔다.

한국은 조세 재정정책에 따른 빈곤 탈출률이 19.5%에 그쳤다. 빈곤 탈출률은 정부 정책 전(시장소득 기준) 저소득층(균등화 중위 소득 50% 미만)이 정부 정책 후(가처분 소득 기준) 중산층이나 고소

득층으로 이동한 비중을 뜻한다. 한국에서는 정부지원금, 연금보험 수령액 등을 모두 합해도 80.5%가 여전히 저소득층으로 남아 있다는 의미다.

한국의 빈곤 탈출률은 OECD 평균(64.1%)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했다. 덴마크, 헝가리, 체코, 네덜란드 등 상위 국가의 빈곤 탈출률은 80%를 넘는다.

정책의 소득 개선 효과도 미약했다. 한국 저소득층의 정부 정책 전 소득은 중위 소득의 25.3%, 정책 후 소득은 중위 소득의 36.8%로 나타났다. 저소득층 소득 개선 효과가 11.5%포인트에 그친다는 의미다.

반면 OECD 회원국은 저소득층의 정책 전 소득이 중위 소득의 13.7%였다가 정책 후 75.8%까지 확대해 소득 개선 효과가 62.1%포인트에 달했다.

연령별로 보면 고령층의 빈곤 탈출률, 소득 개선 효과가 상대적으로 부진했다. 한국의 빈곤 탈출률은 모든 연령층에서 OECD보다 낮았는데 특히 60세 이상에

서는 24.1%로 OECD 평균(80.8%)과 격차가 가장 컸다.

아울러 60세 이상 저소득층의 소득 개선 효과는 16.5%포인트로 OECD 평균(86.3%포인트)에 크게 미달했다.

연구팀은 한국의 정책 소득재분배 효과가 낮은 것은 국내총생산(GDP) 대비 사회복지지출 규모가 OECD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연금 제도가 성숙하지 못한 탓도 있는 것으로 보인다.

한국의 연금 도입 기간은 약 20년으로 수급자들의 평균 가입 기간이 짧다. 공적 연금의 소득대체율도 39.3%로 OECD 평균(58.7%)보다 낮았다.

조세 부담률도 한국(19.4%)이 OECD 평균(25.1%)을 하회했다.

연구팀은 “조세 재정정책의 소득재분배 기능을 강화하려면 개인의 사회적 부담과 복지 등에 관한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양성운 기자 ysw@



휘발유·경유 19주만에 하락

국내 휘발유·경유 가격이 유류세 인하 효과로 19주 만에 처음으로 하락세로 돌아섰다. 한국석유공사 유가정보 서비스인 ‘오피넷’에 따르면 이달 첫째주 전국 주유소에서 판매된 보통 휘발유 평균 가격은 전주보다 1 당 평균 29.7원 하락한 1660.4원을 기록했다. 사진은 11일 오후 서울 시내 한 주유소에 표시된 휘발유와 경유 판매가격. /연합뉴스

“美 수출제한… 中 반도체 발전 지체될 듯”

미국, D램 양산 차질 생겨 공급 난항

미국 정부가 중국 반도체 업체에 대한 수출 제한에 나서면서 중국 반도체산업 발전이 상당 기간 지체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전망됐다.

한국은행이 11일 발간한 해외경제포커스에 게재된 ‘미정부의 중국 반도체 기업에 대한 제재 조치의 배경 및 평가’ 보고서에 따르면 미 상무부는 지난달 30일 국가안보를 이유로 중국의 3대 반도체 업체 중 하나인 푸젠전자(Fujian Jinhua)에 대한 미국 기업의 생산장비, 소프트웨어 수출, 기술이전 등을 제한하는 조치를 단행했다.

이는 중국 정부 주도의 반도체 육성 정책에 대한 견제방안의 일환이다. 미국은 푸젠전자가 D램 양산 능력을 갖출 경우 미국 반도체기업의 경쟁력이 약화될 것을 우려했다. 미국 군사시스템에 필요한 핵심부품인 반도체 조달에 심각한 애로가 발생할 수 있다고 본 것이다.

중국 ‘중국제조 2025’의 일부로 10년간 1500억달러의 보조금 지원을 통해 현재 20% 미만의 반도체 자급률을 2025년에는 70%까지 끌어올릴 계획이다. 중국 국영기업인 푸젠전자는 2016년 5월부터 56억5000만달러를 투자해 D램 생산공장을 건설 중이다.

그러나 미국의 이번 조치가 푸젠전자에 대한 미국 기업의 생산장비, 소프트웨



어 수출, 기술이전이 사실상 전면 중단됐다. D램 양산은 차질이 불가피해졌다. 중국이 미국으로부터 수입하는 반도체 생산기계 비중이 전체의 28%에 달해 생산장비 공급에 난항을 빚을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아울러 미 정부는 자국 메모리칩 생산 업체인 마이크론의 영업비밀을 절취했다는 혐의로 푸젠전자와 대만 반도체 기업인 UMC 직원들을 기소한 상황이다. 미 정부는 이번 수출제한 조치로 푸젠전자의 기술발전이 자국 기술이 이용되었음을 지적한 것이다.

한은은 이번 조치가 푸젠전자의 양산 계획과 기술발전이 지연됨은 물론 중국 반도체산업 발전도 상당 기간 지체될 것으로 예상했다.

보고서는 “중장기적으로 이번 조치가 미 정부의 중국 반도체 산업에 대한 견제를 나타내고 있다”며 “중국 반도체 기업에 대한 제재 확산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어 중국의 반도체 기술 개발에 차질이 예상된다”고 말했다. /김희주 기자

창업 고용 확대 효과, 서비스업보다 제조업 더 커

한은 BOK경제연구 보고서

장기적으로 지역 내 고용에 미치는 영향이 제조업 창업은 큰 반면 서비스업 창업은 작은 것으로 나타났다.

11일 한국은행의 BOK 경제연구에 게재된 ‘창업의 장기 고용효과: 시군구 자료분석(조성철 국토연구원 책임연구원, 김기호 한은 경제연구원 연구위원)’ 보고서에 따르면 창업 후 10년간의 총 효과를 산업별로 분석한 결과 지역 내 창업률이 1%포인트 상승하면 제조업의 고용 증가는 3.30%포인트 상승했다.



31일 서울 서초구 삼성전자 서초사옥 내 홍보관인 딜라이트를 찾은 학생들이 반도체 홍보 전시물을 살펴보는 모습. /연합뉴스

보고서는 지난 2004~2016년까지 시·군·구 단위를 토대로 창업이 장기적으로

역내 고용에 미치는 효과를 분석했다.

제조업 창업은 고용 확대 효과가 컸다. 창업 이후 이듬해까지는 직접고용이 대폭 늘었다가 3~6년까지는 대체효과로 오히려 줄었다. 그러나 창업 이후 7~10년 사이 간접고용이 다시 늘면서 전체적으로 고용이 확대됐다.

특히 고위기술(반도체·디스플레이·컴퓨터·항공) 및 중·고위기술(기계·자동차·석유화학 등) 제조업에서 특히 공급 측면 간접 효과가 나타나면서 순고용 확대 효과가 크게 발생했다.

/김희주 기자 hj89@

한화생명 ‘63빌딩 계단 오르기’ 이색 마라톤

한화생명은 11일 본사가 있는 여의도 63빌딩에서 ‘Lifeplus 한화생명 63계단 오르기’ 대회를 열었다.

올해로 16회를 맞은 이번 대회는 63빌딩의 1251개 계단을 오르는 행사다.

630명의 참가자 가운데 기록경쟁 부문은 김두진(41)씨가 남자부에서 8분 7초의 기록으로 2년 연속 우승했다. 여자부 우

승자는 김미연(27)씨이며 기록은 11분 47초다.

이색 복지 부문에서는 ‘슈퍼마리오’ 복장으로 5명의 친구가 함께 완주한 참가자들이 우승을 차지했다.

최연소 참가자는 김승혁(1)군, 최고령 참가자는 김문남(75)씨다.

/김문호 기자 kmh@



11일 오전 서울 여의도 63빌딩에서 열린 제 16회 63계단오르기 행사에서 참가자들이 힘차게 출발하고 있다. /연합뉴스